2015년도 1학기

**한국학세미나: 한국사회의 변화와 젠더(2)**

**(해방 이후부터 근대까지)**

담당: 문현아

E-mail: mysyrius@snu.ac.kr.

연락: 02- 880- 4051/ 140-2동 303호

**강의시간**: 목요일 9:00 ~ 12:00

**강의교실** : 국제대학원 140동 103호

**강의개요** :

이 수업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젠더’관점으로 살펴보는데 초점을 둔다. 젠더라는 관점을 통해 특히, 한국사회 ‘가족’과 관련된 변화를 구체적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이해하려고 한다. 2학기에 다루게 될 전통사회의 시기에 앞서 먼저 이번 학기에는 해방 이후부터 현대 사회를 다룬다.

수업 내용은 해방이후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변화의 주요한 거시적 쟁점들을 미시적인 주제, 특히 젠더와 가족과 연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한국전쟁과 분단 이후 한국의 사회변화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와 맥락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이번 학기에는 특히 구술사방법론을 소개하고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한 축으로 고려하려 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방법론을 통해 학생들이 방법론을 습득하면서 한국사회 변화의 의미를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연습도 함께 진행하려 한다. 거시사적인 변화 속에서 그런 사회를 살아간 미시적인 개인들의 삶, 혹은 특징적 측면과 연관해서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면서 거시와 미시를 연관짓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의 목표와 이에 대한 평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진지한 토론이 중요한 수업이며 특히 주요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연습이 학기와 마무리와 연결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수업 시간에 발제를 통해 관련 주제가 잘 토론되도록 이끄는 것으로부터 주제별 분석글을 통해 관련 교재를 읽고 비판적으로 이해,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함께 익히려고 한다. 참여의 성실함과 학생들의 결과물을 통해 젠더 그리고 가족을 통해 새로운 한국사회 변화 읽기의 기본을 다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석 및 수업태도: 15%

수업발제와 수업참여를 통해 관련 주제 심화 : 25%

주별 과제에 대한 분석글 25%

기말과제 : 35%

**강의 일정**

**1주(3.5) 강의 개요**

젠더관점으로 한국사회 이해하기의 방법론

젠더와 가족 관점으로 접근하는 한국현대사회 분석의 특징

구술사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수업 진행에 관한 논의

**2주(3.12) 가족, 젠더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변화와 특징**

강이수. 2011.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변화와 정체성>. 문화과학사.

 6장. 근대 한국 100년과 여성의 삶

이정선. 2013. “가족사, 가장 오래된 새로운 역사: 한국 근현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비평> 104. 8호. 266-286.

**3주 (3.19) 젠더, 사회, 역사 : 구술사, 생애사 방법론의 의미**

윤택림. 2011. “구술사 인터뷰와 역사적 상흔: 진실 찾기와 치유의 가능성”, <인문과학연구> 30호. 381- 406.

허영란. 2006. “구술생애사 읽기- <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 및 <한국민중구술열전>”, <역사문제연구> 16호. 171-184.

**4주(3.26) 구술사 방법론 이해하기**

윤택림, 함한희. 2006.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 방법론>. 아르케

 3장. 구술사란

 4장. 구술사 연구방법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선인.

 1부 1장. 구술사, 개념적 이해.

**5주(4.2)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한국구술사학회 편. 2011.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토박이와 민통선 사람들, 전쟁미망인과 월북가족, 그들이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장. 분단선 위를 걷는 사람들 (김귀옥)

4장. ‘골’로 간 사람들의 또다른 역사 (김경현)

8장. 분단의 긴 그림자 – 월북가족이야기 (조은)

에필로그. ‘육이오’를 증언하는 ‘가명’의 사람들 (유철인)

**6주(4.9)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과 사회사적 의미**

윤택림, 2013. “분단과 여성의 다중적, 근대적 정체성: 1930년대 초 출생한 두 실향민 여성의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 29권 1호. 127-162.

박현숙. 2014. “여성 전쟁체험담의 역사적 트라우마 양상과 대응양식”, <통일인문학> 제 57집, 91-123.

# 염미경. 2005. “여성의 전쟁경험과 기억: 좌익관련 여성유족의 구술생애사”, <정신문화연구>, 겨울호 제 28권 제 4호 (통권 101호), 137-164.

**7주(4.16) 국가의 법에 의해 구성되는 가족의 의미**

김주수. 2008. "가족법 반세기의 회고와 과제", <가족법연구>, 23권 1호.

양현아. 2011.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제6장 가족법 제정과 ‘전통’의 각인

 제7장 평등의 하늘, 역사의 땅

 제8장 호주제도 폐지, 그 산을 옮기다.

**8주(4.23) 가족이 사는 공간의 문제: 아파트 공화국과 불량 주택**

줄레조, 발레리,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길혜연 옮김.

 후마니타스.

1장. 왜 한국의 아파트인가?

8장. 단지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

결론

조은. 2012.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또하나의 문화.

 3장. 산동네 달동네 별동네

 4장. 세상의 가난, 가난의 세상

**9주(4.30) 근대화와 노동하는 여성의 가시화**

이희영. 2008. "1950년대 여성노동자와 '공장노동'의 사회적 의미", <산업노동연구> 14권 1호, 165-207.

장미경. 2004. “근대화와 1960-70년대 여성노동자”, <경제와 사회> 61호(봄호), 100-126.

# 정현백. 2004. “자서전을 통해서 본 여성노동자의 삶과 심성세계: 20세기 전환기 독일과 1970, 80년대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1, 1-35쪽.

**10주(5.7) 다문화사회 이주여성의 가족과 노동/ 특강**

김현미. 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돌베개. 2부 중 “송금과 사랑: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 만들기” (41-65)

김경희, 허영숙. 2014.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에스닉 노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3(2), 75-110.

**11주(5.14) 기말과제 중간보고서 검토**

**12주(5.21) 일/가정 양립의 갈등과 협상**

김혜경. 2007. “여성의 노동사를 통해 본 일과 가족의 접합”, <페미니즘 연구> 제7권 2호. 37-82.

신경아. 2013. “여성노동자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난 ‘개인’의 인식”, <젠더와 문화> 6(2), 215-252.

**13주(5.28) 현대가족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존재와 역할에 대한 검토**

정진성. 2008, "한국사회 부성의 구조: 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 ", <페미니즘 연구> 제 9권 1호, 79-111.

이선형. 2011.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한국여성들의 모성인식에 대한 세대비교 연구”, <페미니즘연구> 제 11권, 1호. 59-99.

# 배은경. 2008.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산업화 시기 한국 어머니의 모성경험: 경제적 기여와 돌봄노동, 친족관계 관리의 결합”. <페미니즘 연구> 제8권 1호. 69-123.

**14주(6.4) 가족가치관의 변화 : 저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정민우, 이나영. 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 사회> 89, 105-145.

이민아. 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 사회에서 아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설”, <한국사회학> 47집, 2호. 143-176.

**15주(6.11) 변화하는 한국 가족 : 결혼/비혼의 선택?**

박기남. 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27권 1호. 1-39.

김혜경. 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IMF 경제위기 세대의 가족주의와 개인화”, <한국사회학> 47집 2호, 101-141.